

제주 추가 확진 없어... 자가격리 속속 해제

3번 확진자 접촉 21명 격리조치... 방문지 휴무

1·2번 확진자 접촉 143명은 2일부터 순차 해제

지난 2일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세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3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1·2번 확진자의 상태가 양호해 조만간 퇴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접촉한 143명의 자가격리자도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48·여성)씨의 밀

접촉자가 모두 21명으로 확인됐고 3일 밝혔다. 앞서 공개된 1차 동선(지난달 26일~3월 1일)에 따른 접촉자 명단에서 배달직원 1명은 제외됐다.

제주도는 “A씨와 배달 직원의 진술을 교차 점검한 결과 두 사람 사이의 밀접 접촉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까지 신원 파

악이 되지 않았던 택시기사 1명까지 모두 신원을 확보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세번째 확진자가 들렀던 일부 방문지는 2주 이상 휴무에 들어갔다.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인 A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 20일과 22일 확진된 제주 1·2번 확진자의 상태도 매우 양호해 조만간 퇴원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접촉한 총 143명의 자가격리가 오는 8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해제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가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을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격리와 감시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우선 2번 확진자의 접촉자(68명)가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돼 오는 8일까지, 1번 확진자의 접촉자(75명)는 4일부터 6일 사이 모두 해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14일 잠복기 동안 문제가 없다면 처음부터 감염이 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 접촉자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 국민안심병원 진료 개시

호흡기환자 별도 분리 진료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진료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와 나머지 환자들을 서로 분리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비호흡기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국민안심병원 제도를 마련했다.

국민안심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

자 등 방문객들은 모두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호흡기 증상과 발열, 의사환자 여부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또 환자와 보호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방문은 기본적으로 전면 통제되며 환자 보호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1명만 출입할 수 있다.

송병철 제주대병원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또 도내 최초로 국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해 철저한 감염 관리와 선제적 예방진료로 코로나 19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개학 추가 연기에 긴급 돌봄 확대 운영

이달 20일까지 추가 운영
내일까지 수요 조사 연장
학습 공백 최소화도 중점

제주도교육청은 개학 추가 연기에 따라 긴급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온라인 학습방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3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에서 “앞으로 약 3주간의 시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교육과 돌봄에 있어서 공백이 없도록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23일로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긴급 돌봄을 이달 20일까지 추가 운영하고 수요 조사를 5일까지 확대기로 했다. 학원에 대한 휴원도 지속 권고할 방침이다.

학습 공백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디지털 교과서를 제공하고 제주 e학습터, EBS 학교급·학년별 강좌학습 등 온라인 학습방 운영이 제시됐다. 학교 현장 방역 지속 추진과 함께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확보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공공 도서관과 외국어학습관, 과학탐구체험관 휴관 기간도 연장됐다. 학교 체육관과 시청각실 대여 금지 기간도 늘린다. 진선희기자

55곳서 325명 긴급돌봄
도내 66곳 중 55곳 운영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아동 보호를 위해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지난달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일 현재 55곳에서 325명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66개소 1684명의 아동 중 19.3%에 해당한다. 미등원 1359명의 아동은 가정 내 돌봄과 함께 자가 급식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원 후 센터는 미등원 아동을 대상으로 발열 등 건강 상태와 가정 내 돌봄 상황을 매일 전화로 확인하며 가정 돌봄과 함께 자가 급식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도는 지역아동센터 미이용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 4331명에 대해 사회복지관·식당 등 21개소의 급식 지원 기관을 통해 도시락이나 밀반찬, 간식 등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가정으로 방문·전달되는 아동급식의 특성상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배달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생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는 각급 학교의 개학이 오는 23일로 연기됨에 따라 휴교 기간에도 방학 중 점심 지원과 동일하게 아동급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휴원 결정이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활짝 핀 벚꽃과 꿀벌의 조우 초봄 날씨를 보인 3일 제주시 도두동의 한 주택가에 활짝 피어 난 벚꽃에 꿀벌들이 날아 들어와 꿀을 따고 있다. 강희만기자

확진자 격리기준 완화... 제주는 엄격 대응

원희룡 지사 “병상 수급 문제없어... 현행 유지”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도 362명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현재 입원 중심의 코로나19 치료체계를 중증도에 맞는 치료체계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는 타지역과 달리 도내 병상 수급 등의 문제가 없어 현재 엄격한 관리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소개령을 내려 464병상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 내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 체계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3일 “제주도는 확보된 능력과 의료 자원 등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용에서 종전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제7판을 통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퇴원 후 재확진된 사례(25번 확진자)가 나타남에 따라 임상기준 조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 검사기준과 임상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퇴원이 가능하다.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 지나’라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격리기간은 단축됐으며,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퇴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경증과 중등증, 중증, 최중증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중등증 이상의 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국가지정입원병상에 우선 입원할 수 있으며, 경증 환자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로 분류된다. 경증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관찰 및 생활·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총 148명에서 362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마스크 유통 질서 교란행위 총력 대응

제주지방경찰청, 특별단속팀 편성·운영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3개 경찰서 수사·형사 총 24명으로 편성됐으며 ▷마스크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공적 판매처에서의 횡령 및 별도 창구 판매행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누수 불법행위(절도·횡령)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단속이 시작된 지난 주말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 과정에서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2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경찰은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원활한 마스크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가짜뉴스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태양광 발전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

전기요금 “확” 줄이기

↓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공사실적 1위

새해에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742-5775

www.jejesolar.co.kr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